

펫푸드시장 쑥쑥 크는 데...

수입산에 밀린 토종 동원F&B '군계일학'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전통 있는 글로벌 펫푸드기업에 밀려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든 대부분의 식품 기업은 유의미한 실적을 거두지 못한 채 철수를 선언하고 있지만, 동원F&B만은 펫푸드시장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국내 식품 기업들은 펫푸드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생산시설에 대폭 투자했다. 동원F&B, 하림, 풀무원 등 대형 식품기업과 편의점, 백화점 등 업종을 막론하고 펫푸드 사업에 뛰어 들었다.

대기업 펫푸드사업 뛰어 들었지만
점유율 30% 불과... 외산에 고전
인지도 낮고 유통망 부족 등 원인

동원F&B, 사업 제휴로 돌파구
온라인쇼핑몰 열고 외형 확대

하지만 국내 식품 기업의 펫푸드 산업 내 성장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장시간 명성을 지켜온 해외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전용 식품 브랜드 '오 프레시'와 '오 네이처'의 지난해 매출은 1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생물자원(사료) 사업 매출이 2조 원 중 0.5%에 불과하다.

식품 대기업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동원F&B 펫푸드 브랜드 '뉴트리플랜'은 2020년까지 연 매출 1000억 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 200억 원 수준에 그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하림은 2017년 펫푸드 시장에 뛰어 들었지만 매년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빙그레를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업을 철수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펫푸드 사업에서 기대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장기간 형성된 해외 브랜드 선호와 유통망 부족에 있다. 이에 인프라 개척 및 R&D 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원F&B '뉴트리플랜 모이스트루 주식'. 동원F&B가 고양이 습식사료를 시작으로 반려견 습식사료에도 진출했다. /동원F&B

현재 국내 펫푸드시장은 수십 년 노하우를 쌓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다.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국내 브랜드보다는 장기간 신뢰를 쌓아온 수입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펫문화가 상대적으로 먼저 대중화된 해외(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제품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이 형성되어 있어 고가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반려식품은 사람이 먹는 식품과 다르게 기호성이 있어, 반려동물이 한 사료에 익숙해지면 주인은 쉽게 사료를 바꾸지 않는다.

매뉴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기능이 떨어진다. 수입 업체 네슬레퓨리나는 카테고리별 120종 사료제품을 출시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 영양식부터 세부적인 기능성 제품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동원F&B는 외형을 확대해가면서 국내 펫사료 시장 선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동원 F&B는 사업제휴를 통해 외형을 확장하고 주요사업인 참치가공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고양이용 프리미엄 사료(습식사료)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월에는 반려동물 종합온라인 쇼핑몰 '츄츄닷컴'을 열고 동원F&B 제품과 로얄캐닌, 차오츄르 등 글로벌 인기 펫푸드 브랜드의 사료와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용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CHD와 손잡고 동물병원 전용 펫푸드를 개발하는 등 동물병원을 통한 유통채널 확대에도 힘을 쓰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한진, 中企 수출 위해 긴급 항공화물 운송

한진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특별 전세기 항공화물 운송사로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일본 나리타 특별 전세기 항공화물 운송에 동참했다.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기업 항공화물 수요를 조사한 뒤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특별 전세기 2대를 긴급 편성한 바 있다.

한진이 참여한 특별 전세기는 2차 편성으로 항공화물 운송사 역할을 맡았

다. 여기에는 산자부, 무역협회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동참했다.

2차로 편성된 특별 전세기 1대는 여러 중소수출입기업의 전자상거래 물량 및 기계류 등 약 17톤을 싣고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출발해 나리타공항에 오후 12시 20분께 도착했다.

특히, 산자부, 중기부의 지원으로 특별 전세기 요금은 기준 운임의 75% 수준으로 낮춰 수출입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김승호 기자 bada@

등산복 입고 산으로... 바다로... 카페로...

'엄빠룩은 옛말'... 2030 힙한 등산룩에 매료

아웃도어·데일리룩 경계 허물어
2030세대 등산룩 새 트렌드 부상
레깅스핏 살린 '팬츠' 활용 만점

최근 2030 사이에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입는 아웃도어웨어가 아닌 데일리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편하고 세련된 애슬레저룩을 연출할 수 있는 아웃도어웨어가 주목받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밀집된 인구를 벗어나서 하는 러닝, 등산, 캠핑을 비롯한 야외활동 인증이 SNS 상에서 인기를 끌면서 실용성과 패션을 동시에 중시하는 2030사이에서 아웃도어와 데일리룩의 경계가 허물어 진 것이다. 특히 2030 뉴 등산룩의 포인트는 스포티한 상의와 레깅스. 상의는 액티브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하의는 핏된 실루엣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까지 더해진 힙하고 트렌디한 스타일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상큼한 컬러의 바람막이로 포인트 업
최근 애슬레저 룩으로 활동성과 보디라인을 동시에 잡아주는 레깅스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 어두운 컬러의 레깅스와 함께 얇은 티셔츠, 그리고 그날의 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밝은 컬러 또는 은은한 컬러의 바람막이를 함께 스타일링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몸의 실루엣을 잡아주는 바람막이를 잘



레깅스에 산뜻한 컬러의 바람막이를 매칭한 패션

걸치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는 덤. 2030들이 즐겨 입는 스포티한 느낌의 상의에 레깅스를 매칭했다면 산뜻한 컬러의 바람막이를 허리에 묶어 체온 유지가 필요할 때는 바람막이를 입고, 허리에 걸치면 레트로한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10부 기장의 레깅스는 나뭇가지 등 다리에 스쳐 상처가 날 수 있는 등산 시 입기에 제격이다. /조효정 기자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취임... "도전 DNA로 반드시 위기 극복"

현장 방문으로 업무시작

제주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수장이 바뀌며, 본격적인 위기 극복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항공은 1일 신입 대표이사로 김이배 부사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이배 신입 대표는 업무 첫날인 이날 오전 7시 김포공항 내 정비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승무원 라운지를 방문해 비행을 준비하는 운항 및 객실 승무원들을 격려했다. 취임식은 현장 방문으로 같음했다.

김 대표는 사내망에 게시한 취임사



김이배 제주항공 신입대표(앞줄 왼쪽 네번째)가 제주항공 스마트오피스에서 경영본부장 김재천 부사장(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임직원과 함께 비타민 음료를 나누며 취임 인사를 했다. /제주항공

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하면서, 과거와는 다를 포스트 코로나 시장을 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지난 15년간 제주

항공의 성공에 대해 "제주항공의 체화된 도전의 DNA가 이룩해낸 결과다. 현재의 위기 또한 제주항공 정신으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n번방 막는다'... 몸캠피싱 방지기능 도입

방통위, 스마트폰 관리 앱 보급

'n번방'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청소년의 성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앱)에 게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이버안심존은 과의존 예방, 유해정보 접근 차단 등을 위해 방통위에서 보급하고 있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이다.

몸캠피싱은 채팅 앱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알몸이나 신체의 일부를 촬영토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몸캠 영상과 연락처를 확보, 영상 유출 등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착취하는 수법이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하면, 청소년이 채팅 앱 내에서 카메라를 켤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채팅 상대방의 악성코드 파일 설치를 막기 위해 파일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몸캠 피싱 방지 기능이 적용되는 채팅앱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앱마켓(윈스토어)을 통해 업데이트하면 즉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앱마켓에서 사이버안심존 부모·자녀용 앱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이 몸캠피싱을 통한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SW 개발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